

역사적 아픔 공유...기억과 예술로 하나되다

CULTURE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광주와 대구의 교류 프로그램인 '달빛연대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가 마련된다.

3일 은암미술관에 따르면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2025 달빛연대프로젝트@광주: 코발트'라는 주제로 한 '달빛연대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가 3일 개막, 27일까지 갖는다. 전시에서는 회화, 조소, 설치, 퍼포먼스, 아카이브, 미디어 등 (종합 전시)을 만날 수 있다.

'달빛연대프로젝트'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을 통해 두 도시의 연대와 공감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로,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한국 현대사 속에서 국가 폭력과 민중 저항이라는 공통된 역사를 가진 두 지역의 기억과 예술로 연결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 달빛연대프로젝트@광주'는 광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는 첫 번째 도시 간 예술 교류 프로젝트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제주가 동참한 이번에는 향후 지역간 연대의 폭을 넓혀가자는 포석이다.

전시명에 쓰인 '코발트'는 코발트 블루 색을 띠는 광물로 인식하겠지만 사실은 10월항쟁 이후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조명하는 상징적인 단어다. 또한 코발트의 블루 색은 민주주의와 저항의 상징적 색채로서, 변화와 젊음을 나타내며, 순수와 자유를 상징한다. 이 전시는 10월 항쟁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이후 국가



생명평화미술행동 작 '아시아의눈물'

'달빛연대프로젝트' 첫 번째 전시...회화·설치·조소·아카이브 등 은암미술관서 27일까지... '대구항쟁예술제' 연계전·제주 작품도

폭력과 저항의 기억을 소환하며,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자유 및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 작품들로 규정하고 있다.

10월 항쟁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최초의 조직적 민중 항쟁이자, 이후 한국 현대사 주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10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며,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은폐된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전시의 출품작들은 단순한 역사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언어로 기억을 환

기하며, 현대 사회에서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참여작가로는 권정호 정하수 최수환 김미련 김병호 (이상 대구 5인), 강요배 박경훈 박진희 양동규 (이상 제주 4인), 김화순 박성완 이세현 주흥 하성흠 홍성담 (이상 광주 6인) 등 총 15명이다.

주요 출품작으로는 대구 작가 김미련과 광주 작가 김화순의 영상 작품인 '분지의 불길', 제주 작가 강요배의 '이인성미술상수상작가전' (대구미술관)

출품작인 '코발트'가 선보이고, 제주 작가 양동규와 광주 작가 이세현은 보도연맹 사건과 4·3항쟁, 광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에서 발견한 사물과 풍경, 하성흠과 박성완 작가는 광주와 대구의 역사적 사건과 동시대의 풍경을, 제주 작가 박진희와 광주 작가 주흥은 극적인 시간을 살다간 사람들에게 대한 제의적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각각 선보인다.

또 박성우 전상보 전정호 홍성담 홍성민씨 등이 함께 하는 '생명평화미술행동'의 9.7m 대작 회화 '아시아의 눈물'에서 제국주의 침탈로 고통받은 아시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제주 작가 박경훈은 동학혁명에서 4·3을 거쳐 빛의 혁명에 이르는 근현대사를 한 폭에 담은 묵판화를 출품한다.

전시는 대구로 옮겨 10월항쟁예술제추진위원회의 협력 아래 '대구항쟁예술제' 연계전시로 오는



강요배 작 '코발트' (Cobalt)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시 컨퍼런스는 5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기조강연은 강태원씨 (역사연구자)가 10월 항쟁 발생과 전개를, 발제1에서는 김준기씨 (전 광주시립미술관장)가 '학살과 항쟁 사이 평화예술의 길'을, 양진호씨가 '한국근현대사의 트라우마와 예술'을 각각 발표하며, 토론에는 박경훈 최수환 하성흠씨 등이 참여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5시이며,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축하공연에서는 개막축하공연을 펼치는 '노래모임 새벽광장'이 무대에 올라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노래 '광주여 무등산이여'를 비롯해 1960년에 결성한 피학살자유축회의 노래 '맹서하는 깃발', 동학에서 빛의 혁명까지의 서사를 다룬 노래 '빛의 혁명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더위로 지친 마음 '목요콘서트'로 달래 보세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피아노양상블·실내악 연주 등 풍성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9월의 목요콘서트'를 4일, 11일, 18일,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갖는다.

이번 공연은 △10회차 '드림피아노양상블'의 클래식 '그리스로마인 이야기 With Classic·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과 파멸' △11회차 '포엠'의 실내악 연주 '목(木) 요일의 선율: 나무의 음악' △12회차 '라나투아양상블'의 재즈음악 'Love & Jazz night (사랑을 클래식하게, 재즈처럼)' △13회차 '광주오페라단'의 '네 개의 언어로 담은 예술

가곡의 세계' 무대로 진행된다.

10회차 (4일) 공연 '드림피아노양상블'의 '그리스로마인 이야기 With Classic·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과 파멸'은 영웅 오디세우스가 세이렌과의 처절한 싸움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 음악 연주로, 재미와 생생함을 선사한다.

'드림피아노양상블'은 '사랑과 행복, 희망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는 연주단체이다. 이번 공연의 출연진

은 피아노 정수영·박지현·기영은·김윤진, 첼로 안미영, 메조소프라노 김유정, 바리톤 조형민이다.

11회차 (11일) 공연 '포엠'의 '목(木) 요일의 선율: 나무의 음악'은 무로 만들어진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따뜻한 울림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담아 새로운 감성을 선보이는 실내악 연주다.

'포엠'은 아름다운 선율을 전달하는 현악 앙상블로, 각종 스트리트션으로도 참여하며 그 깊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연의 출연진은 바이올린 박지연·안지유, 비올라 양은지, 첼로 한소

진, 바순 임태준, 클라리넷 정희승이 함께한다.

12회차 (18일) 공연은 '라나투아 양상블'의 'Love & Jazz night·사랑을 클래식하게, 재즈처럼'로, 클래식 작곡가의 시선으로 본 다양한 곡들을 재해석한 재즈 음악으로 품격 있는 무대 (바이올린·첼로·피아노)가 펼쳐질 예정이다.

'라나투아'는 프랑스어로 '자연의'라는 의미로 음악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깊은 치유를 선물한다고 생각하며, 일상의 소음 속에서 자연의 고요함을 담은 음악을 통해 마음의 휴식과 울림을

전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이번 공연의 출연진은 바이올린 안지유·조세음·박지현, 첼로 한소진, 피아노 전민재, 작곡 및 해설에 주의성이다.

13회차 (25일) 공연은 '광주오페라단'의 '네 개의 언어로 담은 예술가곡의 세계'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어 등 네 개의 언어로 표현된 예술가곡을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한 감동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출연진은 피아노 이지은, 해설 및 진행에 김진우, 소프라노 윤한나·이지연, 메조소프라노 문주리, 바리톤 김치영, 테너 신동민이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공연팀에게 전달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4일 10회차 '드림피아노양상블'



11일 11회차 '포엠'



18일 12회차 '라나투아양상블'



25일 13회차 '광주오페라단'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1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설치 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전용(기준만족)
보도폭 확보 용이

사람과 도시

크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민을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유수분리장치 외

빛물저류 침투조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컬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